■ 문화교육연대, 다문화가족 '꽃밭에는 꽃들이' 미술 교실

지난 19일 광주시 광산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열린 미술교육 프로그램 '꽃밭에는 꽃들이'에 참가한 다문화가족들이 '나의 행복했던 기억들'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차별없는 세상 희망을 그려요"

그림 그리기·편지 쓰기 등 다채 … 서구문화센터에 200여점 전시도

"국경을 초월한 아름다운 미술의 세계, 우리 가족과 닮은 꼴이에요."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만난 김미선(9)양은 스케치북에 빨대로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내뿜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김양은 "엄마·아빠와 한 교실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엄마의 고향인 필리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도 즐겁다"고 말했다.

이날 다문화가족센터 2층에서는 하루 종일 함박 웃음이 터져나왔다. 주인공들은 광산구 다문화가족들로, 모처럼 온 가족이 한데 모여 각종 미술 도구로 '동심'을 표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날의 주제는 '나의 행복했던 기억들'. 이 행사는 문화교육연대가 마련한 '꽃밭에는 꽃들이'라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 마다의 추억을 떠올리며 창작욕을 불태우고 있었다.

가장 먼저 교실 한켠에 자리를 잡은 김양은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 박미선(43)씨와 함께 '물감 뿌리기'를 시작했다. 김양은 "딱히 뭔가를 그리려는 건 아니지만, 하얀 스케치북이 아름다운 색깔로 물드는 게 좋다"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냈다.

한국에 온 지 9년째가 된 어머니 박씨도 딸 못지않게 의욕이 넘친다. 무엇보다 박씨는 이 곳에선 주위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기쁘다. 딸과 함께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참가자 모두가 형형색색의 미술 작품처럼 하나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어느 색깔이든 가리지 않고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물감 불기'가 가장 즐겁다"며 "(딸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부터 필리핀에 대해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산구 다문화가정에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꽃밭에는 꽃들이' 교실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건강한 다문화가정 정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한지에 먹물로 편지쓰기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기 ▲찰흙으로 가족 얼굴 만들기 ▲각국의 다양한 음식 모양 만들기 등으로 다양하다. 또 미술수업 외에도 각국의 음식 맛보기나 세계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위성호 문화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색깔이나 모양에 차별이 없는 미술의 세계 처럼 우리 사회도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적극 인정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다문화가정 육성과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 미술을 이용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든 작품들은 27일부터 나흘간 광주시 서구문화센터에서 전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풍경화와 찰흙 작품, 공동 벽화 등 200여점이 공개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물에 빠진 아들 구하려다…

신안서 어머니 등 2명 숨져 … 아들은 어민이 구조

무안서도 40대 익사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어머니 등 2명이 익사했다.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40분께 신안군 장산면 사근리 앞바다에서 김모(여·47)·이모(40)씨 등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김씨는 뻘 소라를 채취하던 중 아들 김모(24)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이씨도 앞서 조카가 물에 빠지자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김씨는 사촌 동생(10)이 인근에서 물 놀이를 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며 사촌동생을 구한 뒤 탈진, 구조 요청을 받고 어선을 타고온 어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 등은 전날 휴가차 고향 마을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 5시40분께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물맞이공원 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오모(43)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오씨는 119구조대 등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심장마비로 끝내 숨졌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수영장 탈의실 도둑 설친다

훔친 열쇠로 옷장 열고 금품 절도 잇따라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노린 금품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범인은 수영장 회원들이 옷과 귀중품을 넣어둔 옷장 열쇠를 다른 물품과 함께 바구니에 보관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이용, 손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열쇠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염주동 모 실내수영장 탈의실에서 누군가 현금 20여만원이 든 이모(32)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같은날 오후 3시30분께 이씨의 일행 이모(32)씨가 수영장 탈의실 옷장에 넣어둔 지갑도 누군가 훔쳐 달아났다. 지갑에는 현금 3만원과 각종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앞서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3일 수영장에서 훔친 열쇠를 이용해 금품을 훔친 여대생 서모(19)양 등 2명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실내수영장 여자탈의실에서 훔친 열쇠를 이용해 옷장 문을 여는 방법으로 현금 38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훔치는 등 전후 1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수영장 회원인 이들은 다른 회원들이 옷장 열쇠를 다른 물품과 함께 바구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한 회원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땅 불법매입 화순군수 친형 징역형

광주지법, 브로커도

골프장 인근 땅을 대량으로 불법 매입한 군수 친형과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6일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순군수의 친형 전일만(6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과정에서 전씨를 대신해 땅을 사주고 땅값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불법 등기한 땅이 1만8천㎡에 이를 만큼 규모가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김씨는 사기 피해자인 전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6월께 김씨로부터 "골프장 건립 예정지 부근 땅을 사 놓으면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순군 동면의 땅 10필지를 2억7천만원에 산 뒤 처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전씨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을 건네받아 이를 땅주인에게 모두 지급하고도 "3천만원만 더 들어가면 매수작업이 끝난다"고 속여 같은 해 10월 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산수동 가정집에 강도 80대 찌르고 돈 빼앗아

26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사는 이모(80)씨의 집에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 이씨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4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범인은 이씨 부부가 저항하자 집안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엉덩이를 세 차례 찌르고 이씨의 부인을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부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참 〈7865〉 김종두

축협 직원 차 저수지 빠져 숨져

26일 오전 9시50분께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자명저수지에서 H축협에 근무하는 이모(35)씨가 자신의 승용차 내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직장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나 별 10개야" 공갈 성폭행

쌍나팔

○…폭력 전과를 내세워 상습적으로 공갈을 일삼고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30대 '전과 10범'이 또다시 경찰서행.

○…함평경찰은 26일 함평군 일대 유흥주점과 모텔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술값과 숙박료 등을 내지않은 것도 모자라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김모(36)씨를 공갈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함평군 업소 5~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술값 300여만원과 숙박료 90여만원 등을 내지 않았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여종업원 A(23)씨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공갈 등 동종 전과 10범으로, 유흥업소 업주 등을 협박해 '민폐'를 끼쳐오다 생계침해범죄 단속에 나선 경찰에 덜미.

/함평=황운학기자 hwang@